

금호타이어 노조 “일괄 수정안 내놓겠다”

8일 노사 교섭 재개... 성과 없이 입장차 확인

노 “사장과 면담을”... 오늘 본교섭 타결 ‘기대’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선 금호타이어 노사가 중단된 교섭을 재개했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까지 가세해 특단의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고 노조도 수정안 제시를 약속한 상황이라 타결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세부현안에 대한 의견차이도 여전히 극적 타결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8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조측이 ‘단체교섭을 재개하자’는 공문을 보냈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여 교섭이 재개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2시간 내내 대부분 사안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고, “아직은 파업을 중단할 수 없다”와 “고용노동부 중재위에 재중재를 요청하자”라는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교섭으로 빨리 이번 분규를 해결하자는 것이 조합원들의 바람이다”며 “9일 열릴 예정인 본교섭에서 타결을 위한 일괄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본교섭 전에 사장과 면담으로 파업과 직장폐쇄를 끝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사측이 책임 있는 인물들로 교섭에 임해 줄 것을 촉

구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교섭 타결 전이라도 파업과 직장폐쇄를 철회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측 관계자는 “파업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교섭 중이라도 파업과 직장폐쇄를 먼저 철회하자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며 “노조의 일괄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지난 5일 최종안을 통해 ▲일당 2950원 정액 인상(평균 인상률 3.0→4.6%) ▲2015년 성과 배분(상반기 실적 기준 70만원·연간 실적 합산 후 지급)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적용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 단체교섭 전까지 합의)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노사 합의에 따른 일시금 300만원 지급 ▲생산 안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적극 노력 ▲무주택 자가주택에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날 교섭에 사측에서는 손봉영 생산성본부장 등 7명이, 노측에서는 윤철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과 하용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대표지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9일 재개되는 본교섭에서 노조의 일괄 수정안을 사측이 받아들여 이번 대치가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거나 사측이 수정안을 거부하면 교섭·파업 국면은 쉽지 않은 국면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노조의 27일째 계속되는 파업으로 7일까지 회사는 99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무노동무임금 금액도 인당 평균 300만원을 넘어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878.68 (-4.54)
- ▲ 금리 (국고채 3년) 1.67% (+0.02)
- ▼ 코스닥 638.22 (-10.58)
- ▼ 환율 (USD) 1200.90원 (-2.80)



지오메디칼 박화성 대표가 공장 생산라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탄생한 콘택트렌즈 생산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단공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칼라렌즈 1등 기업 첨단 ‘지오메디컬’

세계 137개국 수출·미용렌즈 선도...산단공 우수기업 선정

차별화된 칼라 렌즈로 명성을 날리는 지역 기업이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일 광주 첨단산단단지 입주기업인 ㈜지오메디칼(대표 박화성)을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투어 행사를 가졌다.

지난 2002년 광주 첨단단지에서 자리잡은 ㈜지오메디칼은 차별화된 칼라렌즈 생산 기술력과 생산성 기반의 안정적인 고도의 사업모델 구축을 통해 국내외 칼라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다. 칼라렌즈, 1-day, 소프트렌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지난해 1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의 매출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지오메디칼은 남다른 기술개발 노력, 소비자 욕구 충족, 디자인 트렌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칼라 콘택트렌즈 전문제조기업으로 빠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전자와 고분자를 전공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독자기술이 적용된 ‘지오 옐로렌즈’ 출시와 ‘엔젤컬러’라는 브랜드를 주문자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해 까다로운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해외 매출 비중 58%의 수출기업으로서 일본, 중국, 미국, 동남아 등 44개국, 137개 글로벌 고객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지오메디칼은 급성장하는 칼라렌즈 틈새시장에서 철저한 위생관리와 독자기술의 확보를 통해 제품 생산과 기업성장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시아 최초로 서클렌즈를 개발·보급에 성공했다. 칼라렌즈는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꺼려했던 제품이었지만, 지오메디칼은 듀얼레이어 코팅방식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인체에 무해한 칼라렌즈를 생산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시의회(의장 조영표)의원이 8일 오전 시의회 3층 기자실에서 금호타이어 노사갈등 양보와 타협으로 교섭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노사, 한발짝씩 양보... 지역경제 위해 타결해야”

정치권 한목소리

금호타이어 노조의 전면파업에 이어 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노사에게 파업과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하고 성실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8일 시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노사 모두는 갈등 봉합을 위해 한발

물러선 배려와 양보로 다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금호타이어는 노·사만의 기업이기 앞서 광주·전남의 기업이기도 하다”며 “양측이 갈등 해결을 위해 서로 믿음을 갖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것만이 노사와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길이고 광주 시민의 사랑을 받는 지역대표기업으로서 의무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등과 관련, 노사 양측이 대화와 타

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무분별한 정의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실익없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원우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벼랑 끝에 놓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무분별한 정의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노조의 무리한 파업은 경영악화, 국민경제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나비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저기 대기업의 파업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칫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와 신인도가 저하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는 또 “회사 측의 매출피해 추정액은 890억원”이라며 “노사 모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고 협력업체를 포함해 지역경제 전체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필기자 golee@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 최고의 마진
- ▶ 최소의 창업비용
-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옥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

연제동 광명·새한 2차 특별분양

지금의 기회

탁월한 생활인프라 & 미래가치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사이에 위치한 새한아파트는 79㎡, 87㎡, 99㎡, 117㎡, 135㎡의 다양한 평형과 3개와 욕실 2개 480세대의 고객선호도 100%로 구성된 중상형 아파트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남향 로얄층 1억8천만 원 선착순(동·호 지정)분양중입니다.

왕산초등학교가 바로 위치해 있으며, 대형 롯데마트 입점 예정이며 지하철 2호선 예정지입니다. 교통 또한 빛고을로, 북광주 IC, 임방울대로 등 접근성이 매우 좋고 이용도 편리합니다. 주위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개발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리며, 시세보다 저렴하고 인기몰이 중인 아파트로 내집 마련 절호의 기회입니다.

- 3.3㎡당 400만원대 특가분양
- 높은 수익률 임대사업자 환영
- 즉시 입주 대출 70% 가능, 선착순 동·호 지정
- 남·양산지구 중심생활권 우수한 명문학교

상무지구 10분

임대사업자 환영

계약즉시 2,000만원 시세 차익/방 3개, 화장실 2개, 고객선호도 100%만족

특별분양 문의 (062)574-0079